

담배는 '생명을 태운다'라고 하는 것처럼 각종 병을 가져오는 죽음의 독처럼 생각된다. 흡연이 몸에 유해한것은 누구나가 알고있는 상식이다. 하지만, 나쁜 것은 알고 있으면서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은 그 중독이 그만큼 강하다고 생각한다.

담배를 피우는것은 개인적인 기호품이고 피울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요전에 신문에서 폐암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일으킨 일이 있다. 피울 때는 권리를 주장하고 병이나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된다.

이런일은 미국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

요즘은 어디를 가더라도 담배를 피울수 있는 장소가 점차로 줄어들고 있고 흡연자에 대해서는 좋은 시선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옆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피울수 있는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기 때문이다.

요즘은 담배의 독성을 알고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있는 추세인것 같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담배를 계속해서 피어 오던 중년층이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새로 담배를 시작하는 사람은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레스토랑 등에 가면 어린 학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여자들이 담배를 피우는것을 볼수있다.

여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이 남자와 비교해서 특별히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라 특히 여자들은 남자와 달리 결혼을 하면 임신을 하기 때문에 임신중에 흡연을 하면 체중이 적고 지능이 낮은 아이를 출산하게 된다.

이런 특별한 예, 이외에도 심장병, 폐암등 수많은 병이 있다.

흡연은 백해 무익이고, 자신의 건강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의 수명도 짧아 질수 있다.

타인의 강요된 금연이 아니라 몸소 선두에 앞장서서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 하나의 사회 문제가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